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dolescent' self-esteem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희화

교수 김경연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Lecturer : Hee Hwa Kim

Prof. : Kyong Yun Kim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effects of personal (gender, physical growth) and environmental (communication with parent, intimacy of friendship, school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f school-life) factors on adolescent's self-esteem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525 first and second grades in middle school. The subdomains of the self-esteem were peer-related self, home self, teacher-related self, academic self, physical appearance self, physical competence self, personality self, and general self.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were used as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evidence of a gender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subdomains of self-esteem: teacher-related, physical-appearance, physical-competence, and personality. Second, the factor which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each subdomain of the self-esteem was as follows

- 1)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peer-related self was the intimacy of friendship,
- 2)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home self was the communication with parent,
- 3)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teacher-related self was the satisfaction of school-life,
- 4)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academic self was the school performance,
- 5)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physical-appearance self, the physical competence self, and the personality self was the satisfaction of school-life,
- 6)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the general self was the school performance.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발달이 이루어 지므로 사회적 역할 변화 및 새로운 자아정체감의 정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자아정체감 정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담이 되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등에 쉽게 빠져든다고 보고(김하연, 오경자와 윤진, 1991; Edward, 1996)된다.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경감을 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성이 지지되고 있음(김희화와 김경인, 1996; 최보가와 전귀연, 1993; Harter, 1982, 1985; Marsh, 1984; Pope, Mchale & Craighead, 1988)에 따라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추세이나 단순히 상관관계 정도만 규명하고 있어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아존중감 연구시 이런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 초는 신체적·성적 발달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는 감소하는 한편 또래 지향이 점차 증가하며 학교에서 입시를 향한 체계적 교육이 시작되면서 학생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이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는 하위 영역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때 개인적 요인 중 우선적인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성별이다.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 점수를 비교한 연구(강민주와 전경숙, 1995; 이주리, 1994; 이진화와 전경숙, 1995; 임재련, 1987; Nottelmann, 1987)는 다수이나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Watkins & Yu, 1993)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의 차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주나 국내에서 이런 점을 감안한 연구는 실시된 바 없다.

성별 다음으로 관심을 둘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은 신체성숙의 정도이다. 사춘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신체성숙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성숙 정도가 빠르지는 늦은지가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착안한 Clausen(1975, 장희숙, 1995에서 재인용)과 Peskin(1967; Santrock, 1996에서 재인용)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재규명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요인은 가족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족관계 요인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측정하는 의사소통의 개방 정도이다. 아동기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증대하고 자기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기에 자녀의 솔직한 의사표현과 부모의 적극적인 경청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가져옴은 여러 연구(권혜진과 윤종희, 1993; 김정희, 1987; 이경주, 1989)에서 지지되고 있으나 자아존중감 어느 영역의 발달에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래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은 또래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주리, 1994; 이진화와 전경숙, 1995; Harter, 1982; Patterson, Kupersmith & Griesler, 1990)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청소년기에는 일시적인 또래관계보다는 지속적이고 긴밀한 또래관계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하여 친한 친구와의 친밀을 고려해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생활 요인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업성적과 학교생활 만족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간의 학업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학업성적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서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어떤 자아존중감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발달함에 따라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교가 가정 못지 않은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며, 한국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원의 하나가 학교생활 문제(백양희와 최외선, 1997; 이경희와 김광웅, 1996)임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생활 만족 역시 자아존중감과 관련됨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실증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상에서 제시된 변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차원 척도의 문화 적합성이다. 국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차원 척도(최보가와 전귀연, 1993; Harter, 1982, 1985)는 국외에서 제작된 것이거나 그것을 수정한 척도로서 한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문항과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므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척도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하여 제작된 김희화와 김경연(1996)의 척도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성별차를 밝히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변인 즉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친밀,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마지막으로 관련 변인들의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기 초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이해와 환경 구성에 도움이 될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친구관련자아, 가정적자아, 교사 관련자아, 학업적자아, 신체외모자아, 신체능력자아, 성격적자아, 전반

적자아)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친밀,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과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친밀,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이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 성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규명한 연구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각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중·고·대학교의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성별차를 조사한 임재련(1987)과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민주와 전경숙(1995)은 자아존중감¹⁾ 각 영역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3회에 걸쳐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규명한 Nottelmann(1987)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7학년의 경우 인지, 사회적 자아는 성별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는 여아보다 남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초등학교 1, 3, 5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주리(1994)는 신체적 자아만 남아가 높다고 보고했으며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진화와 전경숙

1) '자아존중감'과 '자기역량지각'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영역인 인지적역량, 신체적역량, 사회적 역량등을 인지적 자아, 신체적 자아, 운동적 자아로 서술하였다.

(1995)은 신체적 자아 뿐만 아니라 운동 자아도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전반적 자아는 성별과 무관하다는 것이 두 연구의 일치된 결과이다.

초등학교 5학년 중·고·대학교 각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기정과 이견만(1995)의 연구결과에서 학년별 성차가 나타난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중 중학생의 경우는 학업적 자아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종혜(1996)는 전반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남아가 높으며 학교 자아, 가정적 자아는 성별과 무관함을 보고하고 있다.

2) 신체성숙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변화로 인해 개인의 신체가 아동의 모습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남녀의 신체적 성적 차이가 뚜렷해지는 현상은 개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신체적 성숙이 동료에 비해 빠르거나 느린 사람이 있는 반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개인의 신체성숙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성숙과 개인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성숙이 급등해지는 청소년기 초를 중심으로 조속이나 만속이나에 초점을 두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조속과 만속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남아의 경우는 만속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는데 일치된 견해(Claunsen, 1975, 장휘숙, 1995에서 재인용: Santrock, J W, 1996; Van Hasselt & Hersen, 1987)를 보인다. Clausen(1975)은 사춘기 동안 조속한 남아에 비해 만속한 남아들은 자신감이 결여되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니며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한 느낌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아의 경우는 오히려 조속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Brooks-Gunn, Petersen, & Eichorn, 1985)와 신체적 성숙의 효과가 남아에 비해 덜 분명하다는 견해(Van Hasselt et al., 1987)가 있다. Brooks-Gunn들

(1985)은 조속한 여아는 만속한 여아에 비해 부정적 신체 이미지를 가지며 사회적 일탈을 하기 쉽다고 보고하였다.

2.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1) 부모와의 의사소통

청소년 초기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고 세대차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중요해진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의 발전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연구(권혜진과 윤종희, 1993, 김정희, 1987; 이경주, 1989; 이경주와 신효식, 1990)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중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없으며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중 어느 영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또래친밀

Bigelow과 LaGaipa(1975; Hetherington & Parke, 199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아동기 또래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지역의 근접성, 원조, 칭찬, 수용 등이었다면 청년기에는 또래관계의 지속성과 친밀함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또래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또래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한 친구와 관계가 지지적인지를 측정하여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해야하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강민주와

전경숙, 1995; 이주리, 1994; 이진화와 전경숙, 1995)에서는 학급원의 수용·거부 정도로서 또래 지지를 측정하여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발달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결과에서 또래 지지가 학업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전반적 자아와는 정적인 관계임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Buhmester(1990)는 10-13세의 아동과 13-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친밀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밝혔는데 그 결과 청소년의 성별과 무관하게 두 변인이 정적인 관계임은 입증되었으나 이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다원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3) 학교생활 만족

청소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경험하는 생활은 초등학교 생활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학업적인 면에서 교육방식과 교과내용 수준이 어려워지고 아울러 대입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의 시작으로 학생간의 경쟁이 강화되며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주거의 인접정도나 부모관계망에 의해 또래관계가 형성되었던 아동기와는 달리 친밀감이나 관심의 유사성 등 자의적 노력에 의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학교의 규칙과 또래간에 형성된 규범이 중요시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학교생활 만족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계됨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만족과 비행과의 관련성이 입증(권윤아, 1997; 이현정, 1996; 정유미, 1997)되고 있으며 또한 비행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이 입증(김하연 외 2인, 1991; 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됨을 고려해 본다면 학교생활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유관함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학업성적

단일차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이 유의미한 관계임은 여러 국내외 연구들(김경연, 1985; 김수천, 1973; Coopersmith, 1968;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에서 입증되었으나 다차원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

학업성적과 관련성이 있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사회, 신체, 운동,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와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 본 김치영(1987)의 연구 결과는 운동적 자아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인지, 사회, 신체, 일반적 자아와의 관계를 규명한 Stigler, Smith와 Mao(1985)의 연구 결과에서 성적은 인지, 사회적 자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 전반적 자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 신체, 성격, 도덕, 사회, 가정적 자아와 성적과의 상관을 구한 결과 김기정(1984)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개념은 모든 학년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비학문적 자아개념(학업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자아영역들을 합한 것)은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반적 자아 및 학업적 자아와 성적과의 관계를 살펴 본 Rosenberg들(1995)은 두 변인 모두 성적과 유의미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학업적 자아는 확실히 학업성적과 정적 관계임은 확신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위영역과 성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남녀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525명이다. 표집절차는 부산시의 3개구를 임의 선정하여 각 구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아동이 다닌다고 인정되는 남녀중학교 각 1개교를 유의 표집한 다음 학년별 1학급씩을 무선표집하였다.

2. 측정도구

1) 신체성숙

신체성숙이란 청소년 자신이 지각한 신체적 성숙 정도를 말하며 또래와 비교한 자신의 키와 체중의 변화 정도에 대한 지각점수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숙함을 나타낸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를 말하며 측정을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정유미(1997)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문항은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뤄짐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3) 또래친밀

또래친밀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적이고 긴밀하고 만족스럽게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을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조직망 관계검사(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의 10개 영역중 동료애, 친밀감, 만족감을 측정하는 총 9문항을 김수민(198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 만족은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현정(1997)의 학교적응 척도와 권윤아(1997)의 학교생활 불만족 척도를 참고로 하여 5개분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등의 특정자아와 전

반적인 면에서 본 자아가치를 측정하는 전반적 자아등 모두 8개의 구성영역으로 구성된 김희화와 김경연(1996)²⁾의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보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뢰도 계수가 낮은 4영역인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친구관련자아, 전반적 자아 영역 각각에 대해 최보가와 전귀연(1993), Harter(1982, 1985), Pope들(1988)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중에서 내용이 중복 되지 않게하여 신체외모자아 3문항, 신체유능자아 2문항, 친구관련자아 3문항, 전반적 자아 3문항을 각각 보완 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감정적 요소에 비중을 두어 개발한 척도이지만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로서 다양한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즉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각 문항에 대한 감정 반응을 서술케하고(예-부모님이 당신에게 잘해 주신다면 당신의 느낌은?,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한다면 당신의 느낌은?) 그다음 각 문항에 대한 감정적 반응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감정표현으로 문항진술을 수정하였다(예-나는 공부를 잘해서 기분이 좋다→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럽다).

수정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은 10개 요인이었으나 요인수를 8개로 지정하여 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킨 결과 김희화와 김경연(1996)이 제안한 8개의 자아영역으로 묶어졌으며 총 설명변량은 54.5%이었다. 그리고 신뢰도 계수 Cronbach의 α 값은 영역에 따라 .71-.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자아존중감 척도의 감정 표현방식을 수정하기 위

2) 이들 척도의 하위영역인 친구관련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는 기존의 자아존중감 척도(최보가와 전귀연, 1993; Harter, 1982; Pope et al., 1988)의 사회적 자아(역량), 인지적 자아, 신체적 자아, 운동적 자아, 전반적 자아 또는 자아가치와 각각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한 예비조사는 1996년 11월에 부산시 소재 모남여공학중학교 2학년생 남녀 1학년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7년 5월 7일부터 16일 사이에 대상학급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설문지 응답요령과 주의점을 설명하고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총 550부였으나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525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PC⁺를 이용하였는데 자아존중감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1과 2를 분석하기 위해서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차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면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에서는 성별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련변인과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각 관련변인과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을 규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변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성숙과 또래친밀 그리고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별로 결과를 비교하면 관련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성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남학생의 경우만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어느 영역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남학생의 모든 자아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순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가정적 자아, 전반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학업적 자아 순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적 자아, 전반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친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

<표 1> 성별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의 평균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전반적 자아
남학생	27.86	23.52	18.61	10.31	20.15	20.46	19.36	25.69
여학생	27.92	22.58	16.98	10.29	17.73	18.73	18.28	24.96
t 값	-0.11	2.47*	4.90***	0.08	5.75***	4.18***	2.58**	0.60

*p<.05 **p=.01 ***p<.001

〈표 2〉 자아존중감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관련변인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	전반적 자아
신체성숙	남학생	.098	.045	.032	.164*	.264**	.196**	.125	.189*
	여학생	.086	-.048	.164	.071	.003	.110	-.057	.082
	전 체	.083	.006	.069	.120*	.151**	.160**	.045	.148**
부모와의 의사소통	남학생	.374**	.620**	.284**	.221**	.263**	.231**	.243**	.401**
	여학생	.324**	.695**	.344**	.324**	.355**	.213**	.240**	.359**
	전 체	.343**	.655**	.316**	.278**	.307**	.219**	.241**	.374**
또래친밀	남학생	.556**	.183*	.273**	.084	.227**	.262**	.029	.249**
	여학생	.462**	.155	.088	.038	.116	.187*	.073	.175*
	전 체	.513**	.173**	.179**	.063	.176**	.226**	.050	.217**
학교생활 만족	남학생	.455**	.412**	.336**	.364**	.414**	.350**	.202**	.451**
	여학생	.444**	.449**	.418**	.288**	.261**	.218**	.289**	.360**
	전 체	.449**	.429**	.367**	.332**	.339**	.287**	.241**	.410**
학업성적	남학생	.237**	.260**	.261**	.613**	.227**	.144	.112	.429**
	여학생	.138	.214**	.245**	.670**	.067	.001	.135	.413*
	전 체	.187**	.236**	.247**	.643**	.146**	.073	.123	.420**

*p<.01

**p<.001

감 하위영역은 남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가정적 자아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순이었다.

학교생활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남녀학생의 모든 자아영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순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관련 자아, 전반적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능력 자아, 교사관련 자아, 성격적 자아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전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성격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순이었다.

학업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남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순이었다.

3.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각각에 대한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친밀,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의 stepwise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의해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친구관련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친밀,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성숙의 순이며 네 변인의 설명력은 41.7%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 순이며 세 변인의 설명력은 48.1%였다.

교사관련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성적, 또래친밀, 신체성숙의 순이며 다섯 변인의 설명력은 20.8%였다.

학업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

〈표 3〉 자아존중감 각 영역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β	R ²	F
친구관련 자아	또래친밀	.513***	.263	185,935***
	학교생활 만족	.345***	.375	155,965***
	부모와의 의사소통	.198***	.409	119,803***
	신체성숙	.086*	.417	92,437***
가정적 자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655***	.429	391,886***
	학교생활 만족	.227***	.474	234,715***
	학업성적	.100**	.484	161,997***
교사관련 자아	학교생활 만족	.367***	.134	80,934***
	부모와의 의사소통	.214***	.175	54,988***
	성적	.144***	.194	41,517***
	또래친밀	.088*	.201	32,551***
	신체성숙	.078*	.208	26,966***
학업적 자아	학업성적	.642***	.413	366,198***
	부모와의 의사소통	.196***	.450	213,126***
	학교생활 만족	.097**	.458	146,277***
신체외모 자아	학교생활 만족	.339***	.115	67,503***
	부모와의 의사소통	.214***	.155	47,698***
	신체성숙	.152***	.178	37,402***
	또래친밀	.094*	.186	29,617***
신체능력 자아	학교생활 만족	.287***	.082	46,821***
	또래친밀	.166***	.108	31,652***
	신체성숙	.145***	.129	25,706***
	부모와의 의사소통	.144***	.147	22,377***
성격적 자아	학교생활 만족	.241***	.058	32,105***
	부모와의 의사소통	.178***	.086	24,410***
전반적 자아	학업성적	.420***	.176	111,527***
	부모와의 의사소통	.324***	.279	100,747***
	학교생활 만족	.227***	.321	81,821***
	또래친밀	.114**	.333	64,715***
	신체성숙	.107**	.344	54,326***

*p<.05 **p<.01 ***p<.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순이며 세변인의 설명력은 45.8%였다.

신체외모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성숙, 또래친밀의 순이며 네 변인의 설명력은 18.6%였다.

신체능력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 또래친밀,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순이며 네 변인의 설명력은 14.7%였다.

성격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순이며 두 변인의 설명력은 8.6%였다.

전반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적,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또래친밀, 신체성숙의 순이며 다섯 변인의 설명력은 34.4%였다.

V. 논의 및 결론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본 결과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자아, 성격적 자아는 남화

생이 여학생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는 성별차가 없었다. 이 결과는 신체적 자아와 운동적 자아는 남아가 높으나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전반적 자아는 성별과 무관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주리, 1994; 이진화와 전경숙, 1995; 김치영, 1987)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신체외모 자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은 사춘기가 진행되는 청년초기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덜 만족해하며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콕금주와 문은영(1993), Richards, Boxer, Petersen과 Albrecht(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남학생의 높은 신체능력 자아는 남성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운동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여학생보다 강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과 학교에서 권위자인 부모나 교사의 수용이나 격려에 여학생보다 덜 민감하고 덜 의존적인 남학생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성격적 자아의 성차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격에 대한 만족이 낮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관련변인중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은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성숙, 또래친밀 그리고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 관련변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신체성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만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학업적 자아 순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만 조숙이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Clausen(1975, 장휘숙, 1996에서 재인용)과 Strock(1996)의 연구와 여학생의 경우는 신체성숙의 효과가 덜하다는 Van 들(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신체성숙은 남학생의 자아존중감과만 관련되며 그 영역은 청소년기 초에 신체적·성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히 관심을 두게되

는 신체외모 및 신체능력 자아 그의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래친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관련 자아, 교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가정적 자아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 순이었다. 즉 친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전반적 자아는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가정적 자아는 성별의 영향을 받아 남학생의 경우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되는 한가지는 또래친밀이 학업적 자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강민주와 전경숙(1995)의 결과와 반대로 청소년기 초에 또래친밀과 학업적 자아는 남녀 모든 성에서 무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친한 친구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 할지라도 시험 점수와 같은 객관적 평가 기준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학업적 자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의 또래친밀은 성별과 무관하게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Buhrmester(1990)의 연구 결과와 반대로 또래친밀의 효과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여러 자아 영역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단일 자원의 척도사용으로 인해 나타나지 못한 친밀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한 성별차를 다차원 척도를 사용한 결과 나타남으로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또래친밀의 효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강함을 제시해 준다.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순이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순이었다. 즉 학업적 자아, 전반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는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나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는 남학생의 경우만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업성적은 인지, 사회, 신체, 전반적 자아와는 유의미하나 운동적 자아와는 무의미하다는 김치영(1987)의 연구결과, 그리고 인지, 사회적 자아와는 유의미하나 신체, 전반적 자아와 무의미하다는 Stigler들(198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인 일치를 보이는데 주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성별로 그 차이를 규명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능력 자아와 성격적 자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아영역이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성적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한 변수임을 시사해주며 이런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성취지향적 태도를 강화한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이 성별과 무관하게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문제상황에 대해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대화로서 해결해 나갈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에 불안정한 자아를 강화시켜 줄 것이고 또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은 동료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업적이면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원동력이 됨으로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영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해 준다.

세째, 관련변인이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결과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각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각각 또래친밀,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Rogers(1950)의 현상학적 이론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각된 경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Wells와 Marwell, 1976)는 사실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특정자아의 상승을 위해서는 그 자아의 발달과 밀접한 상황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결과는 관련변인 중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모든 자아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변화기에 발생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변화가 부모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들(이춘재 외 8인, 1987; 장휘숙, 1995; Santrock, 1996)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즉 청소년의 독립 및 자율성 획득 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또래 집단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다는 일반적 견해가 부정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서는 친한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우선적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흥미로운 결과는 학업성적이 학업적 자아와 전반적 자아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자아 영역중 가정적 자아와 교사관련자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적중시 경향으로 인해 높은 성적을 기대하는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아영역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나머지 친구관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신체외모 자아 그리고 성격적 자아의 증가와는 무관함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성적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모든 하위영역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의 특정자아의 발달에는 해당 영역의 자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자아존중감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만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모든 자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성별차가 나타난 영역이 있다. 즉 남학생의 교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는 여학생보다 높다.

둘째,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은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며 신체성숙, 또래친밀, 학업성적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자아존중감 하위영역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각 하위영역에 따라 다르다. 친구관련 자아의 발달에는 또래친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성숙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정적 자아의 발달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학교생활 만족, 학업성적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교사관련 자아의 발달에는 학교생활 만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업성적, 또래친밀, 신체성숙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업적 자아의 발달에는 학업성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외모 자아의 발달에는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 신체성숙, 또래친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능력 자아의 발달에는 학교생활 만족, 또래친밀, 신체성숙, 부모와의 의사소통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격적 자아의 발달에는 학교생활 만족,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 자아의 발달에는 학업성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생활 만족, 또래친밀, 신체성숙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부산시 소재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과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성격적 자아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20%이하 였으므로 다른 변인을 통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친밀, 학교생활만족 변인을 자아존중감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지만 이들 요인이 높은 자아존중감의 결과로서 여겨질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적 방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 참고문헌

- 1) 강민주와 전경숙,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6(1),

1985, 197-210.

- 2) 광금주와 문은영,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과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1993, 29-43.
- 3) 권윤아, 십일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 유형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4) 권혜진과 윤종희,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14(1), 1993, 167-177.
- 5) 김경연, 아버지의 자경심수준, 아동 개인적 변인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자경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1985, 143-150.
- 6) 김기정,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 7) 김수천, 자아개념,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춘천교대논문집, 14, 1973, 35-52.
- 8) 김정희,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9) 김치영,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10) 김하연·오경자·윤진,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동조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2), 1991, 199-212.
- 11) 김희화와 김경연,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5), 1996, 1-12.
- 12) 백양희와 최외선,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1997, 33-48.
- 13) 이경주, 어머니와 청년기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 14) 이경주와 신효식,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 15) 이경희와 김광용,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996, 127-139.
- 16) 이주리,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1994, 193-208.
- 17) 이진화와 전경숙, 연령·성별·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1995, 225-245.
- 18) 이춘재외,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 19) 이현정,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20) 임재련, 청소년 자아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1)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장승, 1995.
- 22) 정유미,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23) 최보가와 전귀연, 자아존중감척도개발에 관한 연구(1). 대한 가정학회지, 31(2), 1993, 41-53.
- 24) Brooks-Gunn, J., Petersen, A.C., & Eichorn, D., Time of maturation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3/4), 1985.
- 25) Buhrmester, D.,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990, 1101-1111.
- 26) Coopersmith, S.,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1968, 218-224.
- 27) Edwards, W.J.,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cence*, 31(124), 1996, 973-989.
- 28)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982, 87-97.
- 29) Harter, S.,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1985.
- 30) Hetherington, E. M., & Parke, R. D., *Child psychology* (3rd), New York :McGraw-Hill, 1986.
- 31) Marsh, H. W., & O'Neill, R.,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II: the construct validity of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ratings by late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1(2), 1984, 153-174.
- 32) Nottelmann, E.D.,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1987, 441-450.
- 33) Patterson, C.J., Kupersmidt, J. B., & Griesler, P.C.,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990, 1335-1349.
- 34) Pope, A.W., McChale, S.M., & Craighead W.E.,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Pergamon Press, 1988.
- 35) Richards, M.H., Boxer, A.M., Petersen, A.C., & Albrecht, R., The relationship of weight to body image in pubertal girls and boys from two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990, 313-321.
- 36)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989, 1004-1018.
- 37)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995, 141-156.
- 38) Santrock, J.W., *Adolescence*(6th), Brown & Benchmark Pub., 1996.
- 39) Stigler, J.W., Smith, S. & Mao, L.,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985, 1259-1270.
- 40) Van Hasselt V., B., & Hersen M.,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Hersen, Pergamon Press: New York, 1987.

- 41) Watkins, D., & Yu, J. . Gender difference s in the source and level of self-esteem of Chines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3), 1993, 347-352.
- 42) Wells, L. E., & Marwell, G., *Self-esteem: it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Sage Library of Social Research, Vol. 20,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76.